

데살로니가후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실라, 행 15:40)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은 어떤 관계인가?(참고, 행 17:1-18:11)

선교사, 혹은 외국인 개척, 설립자이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곳에 들러 복음을 전했다. 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따르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으켜 바울이 잡혀 들어가기까지 했다. 성도들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하고 풀려났었다.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2.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은혜와 평강: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고,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마음의 상태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이 누리기를 빌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롬 1:7, 롬 16:20, 고전 1:3, 고후 1:2, 갈 1:3, 엡 1:2, 빌 1:2, 골 1:2, 살전 1:1, 살후 1:2, 딤펴전 1:2, 딤후 1:2, 딤펴 1:4, 몬 1:3, / 벴전 1:2, 벴후 1:2, 요이 1:3, 계 1:5). 구약의 인사를 보면 히브리인들은 '평강(=shalom)'을 빌었다(삼상 16:4).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였다. 바울은 이 둘을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의 정의를 내린 셈이다.

3. 인사니마(1-2)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편지(살전 1:1)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느긋해진) 느낌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더 추가 되었다. 궁금해서 쓰는 편지(전서)와 소식을 듣고 감사해서 쓰는 편지(후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4.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무엇 때문인가? (새 단어로)

믿음, 사랑, 인내(3) 이 세 가지는 전서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기 때문이다. 전서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성숙한 모습에 대한 감사이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내용상 인내는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다.

5.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할 것이면서 동시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핍박과 환난): 성도들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깊으실 것인데(6-7) 문제는 이것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다. 환난을 주는 자들은 신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훗날 임할 심판의 표일 뿐이다. 죽을 줄 모르고 까부는 격이다.

6.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서 가장 간단한 표현을 찾아보자.

그 나라를 위하여(5c) 이 고난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5).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7. 불신자들이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76-9). 그러면 이미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상을 받을 것(7)이기 때문이다.

8. 통일교 교주 문선명을 비롯해서 한국에도 자칭 재림 예수가 엄청나게 많다. 본문에 비추면 모두 가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 재림 예수는 초림의 예수와 다르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따라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자칭 재림 예수는 가짜다.

9. 믿지 않던 자들이 받은 형벌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10). 영원한 것과 멸망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멸망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 형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인용한 구절에서 한 단어를 지적한다면?

떠나: 주를 떠난다는 것이 바로 형벌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죽고 못 산다면 애인과 헤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영원한 멸망은 바로 이 떠남의 결과일 뿐이다. 주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다.

10. 강림하신 예수께서 왜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까? 왜 성도들이 강림하신 예수를 기이히 여길까?

강림 때에 이루어질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 어떻게 믿어졌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본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 믿음의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제대로 놀랄 날이 온다.

11.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바울의 기도는 필수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믿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다. 반드시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도 성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등록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고 하고, 주시면 감사를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쉬움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2.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면?
예수의 재림 때문에 동심(動心)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를 교훈하기 위해서(2) 동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가족을 핑계치고 재림만 기다리거나 이미 재림했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재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다.
3. 당시의 성도들이 그릇된 교훈인 줄도 모르고 서로 다툰 때 흔히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었을까?
영, 말, 사도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2) 영은 초자연적으로 받은 계시를 말하고, 말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전해들은 교훈을,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는 가짜 편지를 가리킨다.
4. 재림의 광경은 두 가지 장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다. 그렇다면 다른 또 하나의 장면은 무엇인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진 모임: 환영행사인가? 선발된 자들의 구별인가? 소위 휴거를 가리킨다(살전 4:17).
5. 바울은 재림의 전조 현상으로 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가? 본문에 나타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모든 표현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자.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도하게 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 전부 같은 말이다. 이것을 재림의 전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쩌지? 아마도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
6. 4절에서 '일컫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란 뜻이다. 그러면 '범사에가 의미하는 바 혹은 수식하는 말은 무엇일까?
'뛰어나 자존하여'를 수식한다. 혹은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와 동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경배를 강요했던 로마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후에 일어났던 박해를 경험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재림의 징조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야가 더 좋겠다.
7. 설교하는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는 '설교시간에 말한 것을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기억하는 사람보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바울도 그런 착각을 했던 모양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5)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원어의 시제상)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셈인데 가르쳤다고 다 기억한다면 훌륭한 학생이겠?
8. 대적하는 자가 언제 활동을 시작하고 언제 나타나는가?
활동은 이미 시작하였지만(7) 나타나는 것은 정해진 자신의 때가 되어야 나타난다(8) 그 전에는 억류되어 있다. 대적하는 자가 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막는 자가 자리를 옮길 때까지 불법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로 '불법의 비밀'이란 말을 NTW는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로 번역하였다. 대적하는 자가 자기 뜻대로 아무 때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린다면 무저갱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사탄도 별 수 없다는 말이다.
9.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을 행하려고?
죽임을 당하려고(8)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란 것이 이 사탄의 비밀스러운 힘이다. 신비롭다는 뜻이 아니라 억류되어 있는 자가 몰래 몰래 호작질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 사기 당하여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럴만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 공짜를 좋아한다거나 노력하는 것 이상의 이익을 노리는 자가 사기꾼에게 잘 걸려든다. 악한 자에게 걸려드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멸망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사단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기꾼이 극성을 부려도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1. 사탄의 힘을 빌린 악한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능력, 표적, 기적도 있는데 문제는 속이는 것이다. 나쁜 선생님이라고 나쁜 짓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실력이나 열심도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잘못되면 나쁜 선생이 된다.

12. 악한 자에게 속임을 당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받지 아니한 탓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탓인가(9-12)?

둘 다 옳다: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짓을 행하고 진리를 받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악한 자의 선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악한 자에게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판 속에 있더라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한 오묘한 섭리 탓에 생긴 일이다.

13.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착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기 때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13)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 상 받을 자이기 때문(14)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기 때문 아닐까? 그런 고생 끝에 얻은 성도이기 때문 아닐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들의 수고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이다. 아! 위대한 사역자 바울!

많은 선수가 시합을 해도 시합이 끝나면 상 받을 사람만 따로 챙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가장 위대한 상)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챙겨야지!

14. 15절의 ‘말’과 ‘편지’는 2절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2절은 가짜를 말하고 15절은 진짜를 가리킨다.

15. 조상들의 유전(=전하여 준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던(갈 1:14, 골 2:8) 바울이 자신의 유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좀 건방진 것 아닌가?

누구의 유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전의 내용이 올바른냐의 문제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였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전하였느냐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 장

1. '종말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란 뜻이다. 바울이 1장에서는 성도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격려하고 2장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무엇인가?

기도해 달라: 주의 말씀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러워지는 것과 우리도 악한 무리들에게서 곤경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한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이 전파된 것처럼 다른 곳에서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무리에서 곤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2. 주의 말씀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마치 경주에서 열심히 뛰어 우승하여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3.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4.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도(1-5)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격려하는가?

칭찬, 당부, 확신, 믿음: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1, 칭찬), 기도하라(1-2, 당부), 주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3, 확신), 명한대로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4, 믿음)

5.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썼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온갖 박해를 다 견뎌냈다. 그럼에도 자신이나 성도들의 노력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5):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자신들의 수고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귀한 것이다.

6.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하는 것을 가리킨다.

7. 규모없이 행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군인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 성도들 중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 표현을 찾았다면?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6, 10), 우리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7),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11)이다. 아마도 그릇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불성실하며 무위도식하며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살전 5:14)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를 끊음으로 그들의 변명이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12, 15절 참고).

8.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 큰 소망, 즉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과제가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를 본 받으라'.

9.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누구의 말인가?

비슷한 명령이 더러 있으나(창 3:19, 잠언 10:4, 21:25, 시 128:2)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은 없다. 그러나 바울의 작품이라고 해야겠다.

10.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는 표현은 참으로 재미있는 번역이다. 가령, '일하지 않고 참견만 한다'고 번역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미가 다른 두 가지 사안을 두고서 '일'이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일종의 언어유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앞의 일은 생산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은 참견내지는 방해를 뜻하는 말이다. *NIJ*도 그런 맛을 지니고 있다,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

11.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손에 흠을 묻히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한다. 바울 사도가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중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12),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말라(8)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손에 흠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문직이나 고생을 떨 하는 직업을 의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바라야 한다. 심지어 자기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있다.

12.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이 여기에 왜 들어왔지?

게으른 자들의 궤방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뜻이다.

13. 말을 안 듣거든 왕따시켜 버려라(14)?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제를 금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를 금하더라도 원수가 아닌 형제같이 권하면서 교제를 제한해야 한다.

14.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깃들기를 기원하는가?

평강(=화평)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이웃과 화평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15. 편지를 타이핑하든지, 컴퓨터로 찍든지 마지막 사인은 자필로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대답을 한다면?

편지마다 표적이기로(17) 본인이 직접 썼다는 표시이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 편지를 보내는 것(2:2)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16. 바울은 문제 있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여론의 압력으로(6, 14), 모범을 보여서(7-10), 확고한 교훈으로(12), 지속적인 사랑으로(15).